

137. 나는 자비를 원해! 나의 모범이 되고 그들에게 나의 자비를 보여줘.

2015.09.20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사랑하는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주님은 저희와 함께해요. 오늘 밤 찬양은 보통 때와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밖에 있는 귀뚜라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 소리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밤 저는 어둠 속 거대한 미루나무 아래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면서 귀뚜라미의 리듬에 맞춰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오, 그 소리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것은 정말 달콤한 안식처예요.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고 제 영의 눈을 열었고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부드럽게 저를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저녁 먹어'라고 제 음식에 손짓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음식에 대한 관심을 잃고 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심장박동소리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저는 주님의 마음에 안식하고 주님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빠져들었어요.. 저희 우주를 하나로 묶어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저는 주님 실제와 우주 전체에서 고작 하나의 먼지인 저와 여기 함께 있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에 정말 압도당했어요.

(예수님) 클레어, 그리고 나는 아직 난 정말 사람이야.

(클레어) 알아요. 주님은 또한 사람이시고 이것은 이해를 뛰어넘어요. 사람이시면서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우주들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그것들을 화합시키세요? 저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하고 강력한 묵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너는 절대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항상 나의 그 충만함에서 가져가게 될 거야.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사도행전17장28절) 그리고 아직 나의 임재는 끊임없이 너에게 넘쳐나. 나의 신부야, 정말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경계를 알지 못하며, 끝을 알지 못하는 흐름은 계속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위해 용솨음 치고 있어. 만약 너의 그릇을 비우고 나의 자비의 샘으로 오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채울 거야.

(클레어) 오 주님, 제 그릇이 비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불가해한'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

(클레어) 네,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그 단어를 짐작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 최근에 주님의 심판이 제 마음에 떠올랐고 그것은 두려웠어요.

(예수님) 나의 심판은 나의 자비에 의해 완화되어져. 너가 자비를 더 실천할수록 심판의 두려움이 더 줄어들 거야. 나는 매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부터 특정한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의 진노를 억제해.

오 나의 자녀들아, 자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심판이 아니라, 자비가 나의 본성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우주가 남아있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했어.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았으므로 나의 피 아래 있는 너희들은 정죄 받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판단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정도에 따라 나의 자비를 베풀어.

만약 너희들이 평생 가혹하고 독재적이었다면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의 정의를 입증하고 분노의 흔적을 없애고 대신 자비를 기르면 너희들에게 잘 되어질 거야. 누구도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자비를 이용해서는 안되.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모든 면에서 나는 그릇의 약함을 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 너희들 중 일부는 나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큰 것을 포기하였어. 너희들 중 일부는 이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너희들의 형제 자매에게 주지 않았어.

(클레어) 주님,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 하지만 너는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아.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이타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나는 자비에 대한 그들의 헌신으로 누가 왕관을 받게 될지 기다리고 있어.

(클레어) 주님, 의심의 여지없이 저는 그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거예요. 주님은 신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누가 무엇을 얻게 될지 아세요.

(예수님) 하지만 나는 그 경주를 좋아해. 너희들의 경주는 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과 나의 사랑을 위한 것이야. 나는 이 경주를 큰 기쁨으로 지켜보고 있고 나의 천사들은 너희들이 넘어질 때 항상 일으켜 세워 결승선까지 계속 갈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와줘. 나는 너희들 모두가 너희들의 자비로 내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래. 나는 너희들 모두가 내 아버지의 자비 안에서 내 아버지를 닮기를 원해.

(클레어)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비에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들의 지능으로 보는 것과 나의 전능함으로 내가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

(클레어) 주님,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내가 왜 사람으로 와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클레어) 주님의 진정한 본성을 증명하고 저희에 대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정확해.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날 내가 본 것을 너는 볼 수 없어. 또한 산사태, 쓰나미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내가 왜 그들 몇몇을 아주 아주 어릴 때 데리고 갔는지 너는 상상할 수 없어. 나의 자비에는 너무나도 많은 측면이 있어서 너희들은 헤아릴 수 없어. 정말 많은 측면이 있어.

하지만 십자가를 목상하면서 너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동물들에 대한 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한 그림을 얻기 시작해. 나는 그들이 지구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나와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해. 나는 제 3세계 국가의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이 너의 지구보다 이곳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

나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어. 알다시피, 사람의 영(Spirit)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대부분 영혼(Soul)의 의식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어둠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잠재 의식적 지식은 여전히 존재해. 그리고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너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찾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 뉴에이지의 구석구석을 모두 탐험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지구에 보내는 영혼들과 특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래, 특정한 합의,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갈 때까지 그들은 정해진 길을 걸어가.

(클레어) 하지만 주님, 이 지구에서 주님을 알 기회가 없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나의 방식은 너의 방식보다 훨씬 높고 그 영혼과 나의 연결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 영혼의 가장 큰 손실이 일어나는 곳은 죄에 대한 선택과 함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부여하고 모든 영혼의 의식을 통해 일해. 이것이 나에게 그들을 이끌어오는 나의 방식이야. 그리고 시기가 적절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자신을 드러내. 내 사랑아, 천국에는 많은 놀라움 들이 있을 거야.

(클레어) 그 후에, 저는 잠깐 기록을 잠깐 멈추다가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주님, 주님께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 오 그럼, 훨씬 더 많이 있어.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로 책 한권을 채울 수도 있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맨 먼저 해야 해. 자비. 그래, 자비. 텔레마케터(무작위로 전화하여 상품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자비..

(클레어) 오 안되요! 그들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 그들에게도 맞아! 우체부에게 자비를. 이웃과 이웃의 아주 불쾌한 강아지들에게 자비를. 심지어 코요테들에게도 자비를.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고 줄 서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약국에 줄 서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너의 남편이 너의 뒤를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닫을 때도 자비를. 자비를, 자비를, 자비를.

그러면, 자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불평 없이, 노력하지 않고 참는 것이야. 어르신이 지나갈 때 바쁘다는 이유로 서둘러 앞을 뛰어 지나가는 것 보다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는 것이야.

하지만 가장 자비가 필요한 곳은 너에게 상처 혹은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야.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 다른 때에도 그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나의 대사로서 너는 날카로운 말로 준비된 너의 육체 위에서 일어나 조용히 숨을 내쉬고 대신 나의 자비를 들이마셔야 해. 그래, 나의 자비를 들이마셔라. 깊게, 깊게, 자비의 숨결을.

너가 날카로운 말로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던 때를 기억해라. 줄 서있을 때 누군가의 앞으로 새치기했던 때를 기억해라. 같은 주차장소에서 누군가의 주차자리를 빼앗았던 때를 기억해라. 연애하면서 바람을 피웠던 때를 기억해라.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을 보는 것은 너가 너의 육체를 붙잡고 나에게 순종하고 심판이 필요한 곳에 자비를 분배하는데 도움이 되.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의 사랑과 인내로 세상이 틀렸음을 입증해라. 너희들의 친절함의 깊이에서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라. 진리를 말할 하게 될때, 일반적이지 않은 존경심으로 그들을 대해라.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그 추함을 쫓아 내면서 나는 너희들의 연약한 날개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불어넣어 줄 거야. 나도 또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백성 각자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비를 봄으로써 세상이나 나의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세상은 더 이상 사탄의 손에 노예가 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그 손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의 왕국에 들어오기를 간청할 거야.

만약 그들이 치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기도를 받을 때까지 주차장에서 찾은 어떠한 기독교인에게라도 줄을 설거야. 나는 과장하지 않았어. 내 백성들을 통해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이며, 내 백성들은 진정으로 내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게 할 거야.

인류에 대한 증오와 거부로 인해 지옥으로 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오직 진정한 자신으로
되어질 수 있는 치유를 받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기어갈 거야.

오, 나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자비가 나에게 백성들의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해 말할 것이 정말 많아. 자비를 너희들의 이마에 쓰고 너희들의 손에 도장을 찍어라.
그런 다음 집을 나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기분이 어땠는지,
하루가 어땠는지, 무엇을 너희들이 알게 되었는지 나에게 말해줘.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9장13절)

그리고 너희들의 한때 있었던 상황에 그들이 있어. 그러니 그들 사이에 부드럽게 걸으면서
나의 자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오, 너희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축복이 될지.

나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가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해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의 화가 일어나려는 유혹의 순간에 나를
불러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나는 도와줄 거야.